

2023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3.5.30.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8/10	5	2	15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 박주영 위원, 김정동 위원, 장래숙 위원,
김영진 위원, 이인복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6	5	-	2	13	-	13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3	-	-	13

다. 전월(4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대전시 D등급 관련 후속 보도> 17개 광역 시도지사 공약 실천 계획 평가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D등급을 받았는데 후속 보도를 기대함	대전시가 비용에 대한 2차 해명까지 했지만 실제 확인한 내용은 다른 것으로 드러남. 오늘 바로 매니페스토 관련 후속 보도를 할 예정임. <23. 4월 조치>	'22.4월
보도	<정책 비판 보도 미흡> 대전 시정 같은 경우 민심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언론에서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더 분발하고 신경써주시길	정책에 대한 비판들, 대전 시정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외면한 것은 아니고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잠시 누락된 것일 뿐 언론의 본분을 다하였고 지방 권력에 대한 감시와 의무를 다해 나가겠음 <23. 5월 조치>	'22.4월
보도	<소외계층에 대한 보도 강화> 지자체 시책이나 나라의 정책들은 의존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더 소외되고 더 외곽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난방비 문제 등 소외계층에 대해 더 주목하고 더 집중을 하고 있음. 앞으로도 솔루션 저널리즘에 걸맞게 작은 이슈 하나라도 고쳐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음 <23. 5월 조치>	'22.4월
보도	<후속 보도 미흡 > 스쿨존 만취 운전자 최초 보도 후 10일간 거의 매일 만취 운전자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타이어 화재 등 다양한 화재 이슈는 빠진 것 같은 느낌 받아	한국타이어 화재사건과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님. 현재도 조사와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면에 묻힌 부분이 있다면 집중 보도할 예정 <23. 5월 조치>	'22.4월
교양	<다큐멘터리 장날> - 내레이터를 서울 사람으로 해서 굳이 서울티를 내야하나 그리고 너무 도식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다른 관점에서 다른 방법도 고민해 주시길 - 상인들 인터뷰는 많은데 소비자인 일반인 인터뷰는 없어서 아쉬웠음.	-내레이터 관련해서 다수가 만족하는 분을 모셨으면 좋는데 다음 시즌2에서는 친근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내레이터로 고민하겠음 -일반인 인터뷰 추가 건은 실제초상권 문제 등으로 모자이크까지 처리하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중간 중간에 인터뷰를 삽입하겠음 <23. 5월 조치>	'22.4월
교양	<지역성 관련 아이템 제작> 지역에서는 프로그램 아이템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 농촌, 지역 소멸, 인구문제 등 시리즈로 제작하면 어떤지?	지역MBC 16개사가 지금 지역성 관련해서 공동제작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 구조를 통해서 어떤식으로 담아낼지 고민해 보겠음 <23. 5월 조치>	'22.4월
교양	<대전의 옛길 관련 제작 제안> 충청도 권역의 옛길을 중심으로 구간별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랑과 역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 어떤지	삼남대로 통과하는 대전의 옛길 관련해서 현재 금산 37번 국도가 남북으로 지나게 되는데 그 국도 변 이야기들을 프로그램으로 제작할 예정 <23. 5월 조치>	'22.4월

교양	<시시각각> 총선을 1년 앞두고 총청 민심을 알아 보는데 출연자가 거대 양당의 시당 위원장과 그 양당에 출마를 했다 가 떨어진 교수 2분을 모셨던데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하게 표출되지 못하는 단조로움이 있어 아쉬웠음	총선 1년전 아이템으로 기획해 제작을 했는데 거대양당 중심으로 섭외가 되다 보니 내용이 단조로웠음. 앞으로는 다양한 정치단체들의 토론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음 <23. 5월 조치>	'22.4월
기타	<마을 미디어 관련 제안> 유성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조례가 제정 공포됨. 아직 행정기관 예산도 없는데 지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매개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대전MBC에서 관심을 갖고 고민해 주시길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건은 최근에 제정돼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관심있게 지켜보겠음 <23. 5월 조치>	'22.4월
시청자 게시판 (기타)	<시보멘트 종파방송 안내> 종파 AM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침 7시 시보멘트에 종파방송을 고지하고 있었음	현재 AM방송은 휴지 상태인데, AM방송 운용 휴지를 하면서 시보 멘트를 수정했고, 당시 광고시간과 연계된 일부 시보는 방송되고 있었는데 확인 후 수정을 완료 하였음. <23. 4월 조치>	'22.4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3년 5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단체	22.05.01~23.04.30
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소외계층대변	22.05.01~23.04.30
위원	박미숙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경제단체	22.05.01~23.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대전광역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 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 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의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의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 최병욱, 이희중, 임재근, 정훈진, 황혜진, 류용환, 손기배 위원의 임기만료로 손병우, 박주영, 장래숙, 김영진, 이인복, 윤지석, 이진희 위원을 새로 선임함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보도>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범죄인데 공무원의 추가 처벌이 단순히 공무원 이용 시설 1년 동안 이용 못하게 하는 형태의 솜방망이 처벌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도 필요	회의록 첨부	○		
보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보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관련 시설의 의미와 대전 지역에 있는 만큼 그 동안의 과정과 이후에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까지 심층 취재 형태로 정리를 해주었으면 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 보도는 부정적인 기사 일색인데 의료진들의 각오 등 긍정적이고 화합하는 기사도 방송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JMS 보도 영상 관련> JMS 목사 사건 보도에서 그 날 경찰에 송치되는 날이었는데 타 방송은 송치되는 장면을 보여줬지만 대전MBC는 예전에 설교했던 장면을 영상으로 처리했는데 현실감이 떨어져 보였음	회의록 첨부	○		
보도	<전세사기 관련 보도> 대전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인 설명은 없음. 보도의 포커스 자체가 피해자가 많으니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알겠지만 대전 시민 입장에서는 왜 대전이 많은 건가 원인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	회의록 첨부	○		
보도	<산불 이후 장마철 대비 대책 보도> 장태산 산적동 산불로 인근 사회복지 시설의 플라스틱 배수구가 탄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장마철 우려되는 부분들을 짚어주었는데 이 후 행정기관의 대책도 추가됐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과학 관련 기획 보도> 대덕특구 50년, 과학강국 100년이라는 개념의 중심이 바로 대전이다 라는 정체성을 확립했으면 하고, 대한민국 과학축제도 수도권이 하다가 대전으로 밀려났다는 맥락보다는 당연한 중심은 대전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시각각- 피해 예방책> 전세 사기 피해 구제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을 해야 되는 분들은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제일 궁금함. 계약을 체결할 때 뭘 봐야 하는지는 사실 언급이 없었고 막판에 시간이 쫓기시다 보니까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 빨리빨리 넘어갔었는데 끝내 궁금증으로 끝나서 아쉬웠음.	회의록 첨부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시시각각-패널구성> 전세사기 관련해서 실제로 행정기관 관계자 예를 들면 대전시청에서 나와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하는 얘기도 같이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시각각-자막 및 수어방송> 토론이 아닌 나열식 구성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자막 처리가 없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언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막막했음. 홈페이지에 <시시각각> 다시보기에 수어방송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수어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함.	회의록 첨부	○		
교양	<문화예술 관련 방송> 문화예술 관련해서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 또는 향유하는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관련자들이 많음. 코로나 때만 잠깐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이슈가 안됨. 일이 터졌을 때만 다루지 말고 문화예술의 안전망은 잘 되어 있는가, 무엇을 또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가끔씩 다뤄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시각각-1인 가구 관련> 1인 가구 관련 청년 문제, 고독사 등 폭넓게 다루어서 좋았는데 대전이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니 만큼 대전 특색에 맞는 분석과 구체화 또는 특징으로 구성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기타	<유튜브 콘텐츠 관련> 유튜브에 <뉴스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나운서와 기자가 어떤 방식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짧고 분명하게 잘 담겨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음. 기회가 된다면 데스크에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제작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기타 (게시판)	<시청자의견 처리 관련> 시청자게시판에 올라온 제보는 중요한데 답글에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는 내용이 끝임. 시청자 입장에서 공익제보를 한건 수년간 피해를 보고 불편한 사항을 얘기한 것임. 조금 더 고민해서 어떻게 보도했다 또는 처리됐다 라고 해주셔야 할 것 같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발 빠르게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회의록 첨부	○		

2023년 5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3년 5월 30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8명)

손병우 위원, 박주영 위원, 김정동 위원, 장래숙 위원,
김영진 위원, 이인복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위촉식) 진행

이은표 간사

앞에 위촉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약간 절차가 더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앞으로 2년간 시청자위원회를 이끌어주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주셔야 하는데 위원님들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시청자 위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나 전반적인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부위원장은 위원장님 부재 시 직무 대행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자유롭게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김정동 위원

새로 오신 위원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신데 시청자위원회의 취지가 있는 만큼 관련 분야 전문가이신 손병우 교수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은표 간사

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손병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새 위원장을 맡으신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을 지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시청자위원회 명단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와 역할을 가장 잘 나눠 맡으실 분으로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신 박주영 변호사님께서 법률 전문가이고 여성계, 중년층 등 보완 관계가 잘 될 것 같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은데요. 수락하시겠습니까?

박주영 위원

위원장님 추천에 동의하면서 박수를 쳤는데... 수락하겠습니다.

이은표 간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인사 말씀은 본 회의 때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5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배부해 드린 대전MBC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요. 뉴스데스크 앵커의 진행 실수에 관련한 1건과 그리고 공익제보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시면 다음은 김환균 사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을 새롭게 대전MBC 시청자위원으로 모시게 됐는데요. 시청자위원이 되시면 갑자기 관심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는데 그 애정과 관심이 계속되기를 바라구요. 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여서 제작 현장에서 반영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청자위원회는 법이 정한 법정 기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야 하고요.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도 건너뛰지 않고 했습니다. 방송사 평가에 점수로 계산이 되거든요. 위원님들 말씀 중에 반영하고 조치해야 할 것들은 어떻게 반영했고 조치했는지 기록에 남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들 국장님들이 긴장하는 날이예요. 건강한 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회가 좋은 인연을 맺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견을 기대하면서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다음은 시청자위원을 대표해서 신임 시청자위원장인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대전MBC 시청자위원으로 새로 위촉되고 동시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요. 먼저 함께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지역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중요한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대전MBC의 지역 정체성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방송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청자들을 잘 대변해서 열심히 모니터 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5월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견 처리 보고서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의견을 진행하는 순서로 할까요? 아니면 먼저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설명을 간단히 듣도록 할까요?

이은표 간사

통상적으로 시청자의견에 대한 답변을 유인물로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위원님들 한 분씩 시청 소감 말씀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저희 해당국장님들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손병우 위원장

네 그러면 5월 시청자의견 처리 보고서는 답변하실 때 혹시 질문이 나오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지난 1년간 활동해 오신 김정동 위원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정동 위원

저는 보도하고 프로그램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도는 지난달에 대전에서 음주운전 스쿨존 사고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로 시작해서 사회적 대책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전시와 구청에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1년 동안 못 이용하게 하겠다든지 이런 수준의 내용들이더라고요.

사실관계만 보도하는 내용들로 정리가 됐었는데 실제 사회적 문제로도 드러나고 있고 최근에 음주운전 판례를 보면 초범에 별도의 사고가 있지 않더라도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은 걸 보면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범죄인데 공무원의 추가 처벌이 단순히 이런 형태의 솜방망이 처벌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취재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고민이 좀 들고요.

그에 반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펜스라든지 시설물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인 자치단체가 예산이나 관리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문제가 많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이나 재정 지원까지 해야 한다는 보도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관련 보도는 5월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전MBC에서 보도를 해왔는데 실제 국비 지원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 시설의 의미와 대전 지역에 있는 만큼 그 동안의 과정과 이후에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까지 심층 취재 형태로 정리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들더라고요.

<시시각각>은 전세사기 관련해서 방지책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시의적절한 주제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전문가나 기자분들의 현황이나 문제점 정책에 대한 내용까지는 좋았는데 실제로 행정가 예를 들면 대전시에서 나와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얘기도 같이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준비를 하시면서 섭외도 하시고 고민도 하셨을 텐데 잘 안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달이면 민선 8기와 9대 의회가 1주년이 되는 해인데 아마 많이 준비하고 계획 실 거라고 생각해요. 1년에 대한 평가와 집행부 의회에 대한 평가를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전MBC의 참신하고도 깔끔한 기획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우 위원장

네 김정동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장래속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속 위원

오늘 게시판에 올라온 제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답글을 보시면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가 끝이에요. 시청자 입장에서 공익제보를 한건 수년간 피해를 보고 불편한 사항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도했다 또는 처리됐다 라고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분도 공익 제보를 KBS나 TJB에 안하고 대전MBC에 공익제보를 해주셨잖아요. 보도를 잘해줄 것 같아서 대전MBC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중하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발 빠르게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청소년 마약에 대해서 보도를 해주셨는데 일반인들이 청소년 마약에 관심이 많고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그날 기자가 보드를 놓고 써가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증가가 됐는지 숫자로 설명을 해주면서 원인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숫자로 보통 몇 퍼센트가 증가했고 이것이 원인이라고 써가면서 설명을 해 주니까 굉장히 귀에 쑥쑥 들어왔어요. 살아있는 방송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보도를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건 김정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세사기 보도하면서 세종시 전세 사기 된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해서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서 시간을 재려고도 했는데요. 당사자나 행정기관 관계자의 인터뷰는 하나도 없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JMS 목사 사건 보도에서 그 날 검찰에 송치되는 날이었거든요. 타 방송은 송치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근데 대전MBC는 예전에 설교했던 장면을 영상으로 내보내더라고요. 그런 것도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장래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박주영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위원

저는 전세 사기 관련 내용 봤습니다. 뉴스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다루셨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많이 언급하시는 게 대전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다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낸 자료를 보도를 하시던데 그런데 왜 전세 사기가 대전에 제일 많은지는 아시는 거죠. 대전에 1인 가구가 많고 그래서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으세요. 그냥 대전이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다는 얘기만 하셔서, 물론 보도의 포커스 자체가 피해자가 많으니 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신 거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전 시민 입장에서는 왜 대전이 많은 거지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과 마치 대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상을 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시각각> 5월 7일 방송분을 봤는데 전 좋았습니다. 일단 필요한 시기였기도 했고 서두에 전세 사기와 전세 피해를 구분해야 된다는 언급이 되게 좋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 사기가 뭘니까 라고 물어봐요. 본인들이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는지 전세 보증금을 못 받으면 그게 다 전세 사기인지 굉장히 헷갈려하거든요. 처음부터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상태라서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전세 사기와 역전세라든지 이후에 임대인의 어떤 자력 부족으로 사후에 돌려받는 게 어려운 전세 피해는 구별이 돼야 돼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하면서 시작해서 보통 보증금을 못 받는 분들이 자기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과 그래서 이걸 형사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소모를 하지 않게 가이드를 해 주셨던 생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나오신 분이 다들 전세 들어오는 걸 꺼려하다 보니까 임대차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야지 내 보내줄 수 있는데 그건 사실 전세 사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후적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언급해 주셔서 모르시는 분들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념도 구별해 주시고 전세 사기 유형과 전세 제도를 계속 이대로 하는 게 좋을까 하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웠고요.

다만 앞에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구제도 중요하

지만 대부분의 잠재적 계약을 해야 되는 분들은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뭘 봐야 하는지는 사실 언급이 없어요. 막판에 시간이 쫓기시다 보니까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시죠 하면서 빨리빨리 넘어갔거든요. 실제로 제목 타이틀도 전세 사기 피하려면 이라고 돼 있어요.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방송을 끝까지 들으셨을 텐데 그 부분은 끝내 궁금증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아쉬웠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나오신 분이 실질적인 방안에 임대차 현황과 전세위자들 현황을 공인중개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라는 언급은 잠깐 있으셨지만 실제적으로 전세위에 대해서 정확한 고지가 되지 않아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가구 주택과 신축 다가구 주택 어떤 유형에서 전세 사기가 가장 잘 일어나는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전이니까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시는지 궁금해서 쪽 봤었는데요. 대전이기 때문에 향우연 원장님도 나오시고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소장님도 직접 나오셔서 인터뷰를 해서 참 좋았습니다. 대전에 있다는 장점과 긍지를 잘 살리신 보도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박주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영진 위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대전MBC가 그동안 어떤 방송들을 하셨고 또 어떤 형태로 방송하셨는지를 전반적으로 봤는데요. 좋았던 지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날>이라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일단 공영방송이 지역에서 어떤 목소리와 장면들을 담아내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사람들이 쉽게 주목하지 못하지만 분명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는 게 대전MBC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과 서사들을 굉장히 잘 담아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각각의 콘텐츠들이 길기 때문에 저희 같은 세대는 접하기가 어려운데 몇몇 장면들은 숏츠 형태로 잘 담아내셨더라고요. 욕쟁이 할머니가 시장에 손님들하고 얘기하시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다 안 보더라도 짧게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유튜브에 <뉴스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요즘은 안 올리시는 것 같은데 남유식 아나운서와 젊은 기자분이 어떤 방식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짧게 콘텐츠를 만들어주셨던 형태가 있었었는데 방송 이면의 모습들 그리고 어떤 보도를 하기 위해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굉장히 짧고 분명하게 잘 담겨 있었던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형식들은 기자분들이나 아나운서분들 뿐만 아니라 데스크에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라도 같이 이야기를 더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전세 사기 쪽은 <시시각각>을 통해 봤는데 일단 저도 과거에 시시각각에 여러 차례 출연을 하면서 매번 느꼈던 거긴 한데 좋은 주제와 좋은 내용들을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은 저도 항상 느끼는데 다만 프로그램의 구성 방식 때문인지 혹은 진행 방식 때문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진행 자체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각각의 패널이 쪽 나열하듯이 얘기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 본방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다시 챙겨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캐치해 내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생방 하듯이 녹화해서 그대로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요한 부분에서의 자막 처리가 없어서 다시 찾아보는 입장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언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굉장히 막막한 지점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인 편성에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대전MBC 홈페이지에 <시시각각> 다시보기를 보면 수어 방송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 본방에서는 수어가 나오는데 다시보기에서만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 그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인복 위원님의 발언을 들겠습니다.

이인복 위원

대전이 재미없는 도시는 아닌데 노잰 도시라고 자꾸 하다 보니까 거꾸로 진짜 노잰 도시가 되어 가는 듯한데 저는 대전MBC에서 가능하다면 '노잰 도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5월 보도에서도 노잰도시 대전이라고 하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도 거꾸로 물어보거든요. 그 정도로 재미없냐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잰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대전MBC내에서 만큼이라도 걷어내는 작업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문화예술 관련해서 편성이나 뉴스에서 많이 다뤄주고 계시는데 생산자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생산되는 것을 소비하는 사람 또는 향유하는 사람들, 동아리형태 등등 이렇게 놓고 보면 대전시 인구 중에 문화예술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거든요.

제가 <시시각각>에 패널로 출연했던 게 21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코로나 때만 잠깐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이슈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무관심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일이 터졌을 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문화예술의 안전망은 잘 되어 있는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가끔씩은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인복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윤지석 위원님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윤지석 위원

어느 직장이나 가정, 단체든지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전MBC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사훈이 안보이더라고요. 공영방송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그 에너지를 한 군데로 내뿜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듣다 보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갈등하면서 자기 입장을 대변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방송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공영방송이 할 일 중에 하나는 갈등보다는 화합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보다는 함께 가라는 명언이 있잖아요. 멀리 가고 싶으면 혼자보다 함께 가라 그런 것처럼 갈등 구조를 화합하는 구조로 만들었으면 하고요.

MBC 프로그램 중에서 유쾌한 청백전이라는 대표적인 스포츠 예능프로그램을 기억하는데, 거기에 여야 또는 갈등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 출연해서 서로 화합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당파지만 머리를 맞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전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사회 치유 통합 프로그램을 하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5월 30일 불법 낚시 장기 야영 보도를 봤는데요. 갑천이나 대전천에서 낚시대를 10개씩 들여놓고 불법 낚시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한사람 당 낚시대 한대 그리고 친환경 미끼를 사용하도록 나와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외국은 낚시나 야영을 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인터넷에 접속해서 허락을 받고 그 것을 출력해서 텐트에다 붙여야만 그 텐트를 쓸 수가 있고 없으면 당연히 수거해갑니다. 과대한 벌금을 물린다든지 1년에 50불을 내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내준다든지 하는데 기자분은 그런 외국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제시하고 끝냈습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제목이 과제 산적, 대전 어린이 재활병원 개원이 코앞인데 준비 부실, 개원 앞두고 파업 추진... 제목만 봐도 부정적인 게

강하거든요. 처음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뉴스만 보고 싶었는지 궁금하고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어떤 분의 노력에 의해서 생겼고,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시민들의 기대라든지 의료진들의 각오라든지 이런 뉴스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부정적인 기사만 위에 뜨더라고요.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을 공영 방송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윤지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진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기도 했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같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시시각각>은 제가 가끔 보던 프로그램이어서 5월에 방송했던 세 가지 콘텐츠는 두 번 정도씩 다시 보기를 했는데요.

전세 사기는 앞에서 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1인 가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윤정부 1년 이렇게 세 편을 봤는데 시의적절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세 사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가 좀 안된 아쉬움을 느꼈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용이 좋았습니다. 대전이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데 특별히 대덕구가 더 많고, 대학이 많아서 청년 1인 가구들이 많이 있고, 고독사 문제도 그 안에서 다뤘는데 청년뿐 아니고 중장년, 이제는 노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라고 해서 외로움과 고독사 문제를 폭넓게 다뤘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더 분석하고 구체화할 것인가, 또 이게 대전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렇다면 대전에서 다룰 때는 대전만의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하고 조금 더 구체화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부재, 이것을 어떻게 움직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인 가구의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는데 그게 사회 현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하면 조금 더 구체화하고 조금 더 특집으로 잡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앞서 다루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청년도 있고 중장년도 있고 노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시간에 다루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용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윤 정부 1년 내용을 보면 앞으로 지방 정부 1년 방송도 나올 거니까 열심히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작지만 의미 있었던 내용은 뉴스데스크에서 장태산 산직동 산불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이 많은 혼란을 겪었고 장애인분들이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어려움을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문제를 다뤄주셨어요.

산불이 나서 나무가 타서 없어진 상황에서 장마철에 폭우가 오면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고, 배수로나 시멘트인 줄 알았더니 플라스틱이라서 산불에 탄 것들을 미리 보여줬는데 그게 왜와 달았냐면 저희가 사무총장 간담회를 할 때 서구 관할이어서 그런 문제들을 제시했었거든요. 이미 대전MBC에서 그 부분을 다뤘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봤고 이후에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조금 있으면 비가 오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 앞서서 준비하셨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행정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적극적으로 모니터를 해야겠다고 또 저 말고 다른 분들의 청취를 독려해서 제가 의견을 수렴해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네 이진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에 얹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날>을 보면서 우리 충청도 언어의 함축성, 해학성 이런 것들을 조금 끌어내지 않았는가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화를 이끌어 내는 VJ의 의도적인 역할도 더 필요했으 텐데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인복 위원님께서 노잼 도시라고 우리가 스스로 사용을 왜 하나냐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자하고 같이 간단한 논문 하나 쓰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노잼 도시라는 브랜드를 울산과 광주에서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원조가 대전인데. 물론 노잼 도시 대전이라는 그 브랜드는 대전이 막강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도전이 아직은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노잼 대 찌뎀, 노잼 대 진뎀이라는 두 개의 비교 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관과 관련해서 대전의 노잼 브랜드가 앞으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이 될 수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개념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연중기획 대덕특구 50년 과학강국 100년을 봤고요. 5월 5일자였던 것 같은데 대전MBC의 60년의 자료 화면들로 구성했고, 대덕특구에서 기술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시점마다 방송했던 뉴스데스크의 화면을 활용하면서 보도한 것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방송국은 할 수 없는 보도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매우 좋았다고 봤고요.

그리고 브리지도 나오고 분수대 앞 야외 스튜디오에서도 진행도 하고 토론도 하고 다각도로 시도한 것이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덕특구 50년 과학강국 100년, 이 개념에 대덕이 바로 대전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항상 우리끼리는 알지만 방문객이나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될 때 이곳이 바로 대전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대전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대전MBC가 대한민국 전체의 중심, 방송의 중심으로 나타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뉴스에서 수도권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과학 축제가 대전에서 선을 보이는 건 2005년 이후 18년 만이다 라는 보도를 했는데 대전을 수도권과 대비시키는 것은 중심과 대비시켜서 주변으로 스스로 설정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수도권에서 밀려났던 걸 18년 만에 다시 대전에서 하게 됐다는 맥락보다는 당연한 중심은 대전이라는 의미 쪽으로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전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프로그램의 퀄리티나 의미부여 측면에서 중심성을 갖고 강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의견을 한 분 한 분씩 전달을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MBC쪽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표 간사

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래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시청자 의견에 대한 부분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공익제보 의견은 28일 일요일 오후 4시 휴일에 접수했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해당 부서에게 전달하였고 그렇게 빠른 답변을 쓴 것이고요. 사실상 해당 부서에서 뉴스 밸류에 대한 판단시간도 필요하니까 빨리 처리하느라 그렇게 답변을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방송 관련해서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튜브 다시 보기에 나오지 않는다 라는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라이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 시청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따로 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튜브에는 자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수화나 자막 둘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두 가지 버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번 향후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지석 위원님께서 저희가 있고 있던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사훈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자유 책임 품위 단합입니다. 이제 실무국장님들로부터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최기웅 보도국장

김정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스쿨존 사고 관련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음주운전 차량 그리고 스쿨존 내에서의 안전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거에 드러난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속보도 중요하고 특히 그 이후에 안전 시설물에 대한 문제들... 실제 기준과 다른 기준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도 문제인데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조차도 없는 게 아직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발하고 짜낸 보도들이 있었고요. 특히 관련 규정들에 대한 실행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떠넘기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굴 보도한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뉴스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어린이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맹점들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계속해서 주시하고 보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수년 전 추진 과정부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논란들과 문제들을 보도해왔는데 실제 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 어린이 수요는 많은데 병원에서 수용해낼 수 있는 인원은 너무도 적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할 것인지 초청으로 할 것인지 어느 쪽도 사실은 쉽게 결론 내리기 쉽지 않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오늘 보도가 준비가 돼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잘 돼야겠죠. 보도라고 해서 어떤 문제점만 발견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중부권에서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고 장애 아동들에 대한 최소한의 시스템도 없던 시절에서 그나마 시스템이 마련된 부분들이니까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하신 제보는 뉴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보 중에서도 기자가 많다면 모든 제보들을 다 처리하고 같이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보들 중에서 시급한 것들 위주로 좀 처리를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JMS 자료 화면 사용 지적과 관련해서 실제 JMS 출두할 때 저희가 보도를 했었고 자료 화면들을 쓰면 좋은데 편집실 쪽에서 커뮤니케이션 문제 때문에 적합한 화면이 안 나간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관련한 피상적 보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관련 보도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까. 특히 신축 다가구 주택들에 대한 부분과 1인 가구들이 많다는 분석 보도가 있었고요. 여러 개의 보도 중에 하나를 보신 것 같은데 대전하고 세종은 근래 수년간의 집값 상승이 가팔랐고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 갭 투자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누적된 부분들이 있고요. 유형에 대한 분석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의해라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여야 간에

법제화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을 차지하고서라도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지 저희가 관심 갖고 보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 관련해서는 대덕특구 관련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과학보도에 있어서 과학의 도시라는 게 대전 정체성이기도 하고 지난 나로호 발사 때부터도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하지만 실제 그 신호를 추적하고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항공우주연구원 이 있는 대전입니다. 우리가 위성 자력 발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완벽한 성공이기 때문에 본사하고 이원화에서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담당하고 저희가 위성 관련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대전MBC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학 보도에 있어서는 더 관심을 갖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대덕 50주년 과학강국 100년을 주제로 여러 가지 과학의 성과들과 미래를 진단하는 뉴스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차차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홈페이지 <뉴스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인턴들을 활용해서 유튜브나 홈페이지 용도로 만들었는데. 뉴스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험적으로 딱딱하지 않게 만들어봤는데 인턴들이 나가고 새로운 인턴들이 들어와서 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불법 낚시 보도 관련해서 실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낚시 면허제를 시행을 하고 있죠. 저희는 단속이나 제도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나가도 이듬해 또 다음해에도 관련 제보들이 또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뉴스들도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보도는 문제점만 보도하는 게 아니라 향후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관련 보도가 준비가 돼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들에게 사기 진작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화재 이후에 산사태 등 2차 피해들이 우려된다는 부분들 우리가 기획 준비하고 있고요. 제작년부터 저희가 뉴스에 모토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문제도 중요하지만 생활 주변에 있는 작은 문제들부터 개선해 나가자 그런 차원의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감시 역할도 중요하지만 생활 주변의 작은 문제들부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덕 50년 과학강국 100년 기획 보도를 하고 있고 5월에 과학의 날 즈음해서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이동 보도국 생방송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대전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학의 도시라는 부분이 대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전과 대덕이 유리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50년이 있고 대덕이 있지만 거기에 대전이 어떤 역할을 했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꾸준히 보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덕을 물고 열린 과학으로 나가는 게 대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편성국장

먼저 <시시각각>에서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정동, 장래숙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출연해서 실효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어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실효적인 부분은 행정관청에서 해야 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담 부서가 어디냐 라는 논란이 있어서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만치 않았던 부분이 있고 편성국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관심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2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다뤘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주영 위원님께서 사기와 피해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구분이 잘 된 것 같고 예방 대책은 뒷부분에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콘텐츠에서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만 따로 모아서 어떤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큐멘터리 장날>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지상파 MBC가 타깃 시청자 층을 <장날>을 통해서 확인한 것 같은데 올드미디어 차원에서 40대 중반 이상 중장년 층한테 소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률 측면에서도 괜찮았고 조회수 측면에서도 괜찮은 성적을 거둬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각각>은 토론이 아니라 나열식 주장만 연결된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한데 화끈하게 딱 붙을 수 있는 어떤 논쟁점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매번 그럴 수는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전체 콘텐츠를 관통해서 견지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어 방송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분들을 위한 장애인 방송은 자막방송, 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크게 세 가지인데 자막 방송은 전체 콘텐츠에 모두 시행을 하고 있고요. 화면해설방송은 일부 콘텐츠만 하고 있고 수어방송은 재원 문제로 전체 프로그램을 다 하지 못하고 현재는 뉴스데스크만 하고 있습니다.

가치 판단 측면에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했고 예산을 무한대로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은 수어방송이 없는 콘텐츠인데 홈페이지 상에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잼도시 관련해서는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지만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는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답이 따로 있다가 보다는 앞으로 계속 시청자 위원님들과 저희가 계속 깊이 있게 고민하고 토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 관련자들에 대한 관심은 저도 생각을 해보면 문화예술이 무엇이고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해 어떤 접근 방식을 가져야 될 것인가 나름 고민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접근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윤지석 위원님께서 지역 방송이니까 지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이슈나 콘텐츠를 대전MBC가 제작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역 정체성을 지역민들이 같이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통합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지역 방송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말씀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시각각> 1인 가구 주제를 잘 보셨다고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대전이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실효적 논의가 될 수 있게 콘텐츠 구성을 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공감을 하고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큐멘터리 장날>에 대한 아쉬움도 저희가 향후 시즌 2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이 제작될 때 충청도 언어가 가진 해학성 함축성에 대해서 이끌어내야 하는 문제라서 현장에서 제작진이 더 고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으신 위원님들께 저희가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의이고 도리인 것 같고요. 사장님 취임하시고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MBC가 공영방송사로서 공익성은 물론이고 지역성 구현에 많은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어려운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을 저희가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에 <고마워요 같이가요>를 충청도 사투리 라임을 차용해서 연중 캠페인

<고마워요 같이가요>를 진행했습니다. 월별로 2주마다 다른 주제를 발굴해서 스포츠로 내보냈습니다.

올해는 속편 격으로 <힘을 내요 같이 가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옥에 들어오시다 보면 큰 현수막이 있는 걸 보셨는데 아까 윤지석 위원님께서 사훈을 말씀해 주셨죠. 내부에서는 사훈도 중요하지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연중 캠페인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콘텐츠 제작에 철학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인복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여러 고민과 준비 끝에 대전MBC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까지 50명 이상의 청소년들로 구성이 됐는데 수익성으로 보면 상당히 돈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 KBS, MBC를 중심으로 전국에 어린이 합창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가 됐고 남아 있는 데가 거의 없는데 저희는 이것 부활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합니다. 공영성과 지역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벌써 창단한지 2개월여 만에 대전시립청소년합창단과 예술의전당에서 협연도 있고요. 11월에는 성악가 김동규씨와 정기공연도 예정돼 있고, 내년 4월에는 독일드레스덴 필하모니의 초청을 받아 독일 공연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목해 주시고 대전MBC가 상당히 어려운 시국에 다른 방송사가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저희한테 힘을 주시고 자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 경영, 사업, 광고 전반적인 부분을 맡고 있는데 노잼 도시의 이슈를 말씀하셨지만 현 시장 취임해서 진행한 '대전 0시 축제'의 프레 성격인 '대전 0시 뮤직페스티벌'을 작년에 저희가 입찰에 성공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이유 때문에 참여를 못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꿀잼 도시 대전' 기치를 내걸고 있는데 지역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공연 사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역의 지역 사회 수준을 높이고 공감하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라든가 콘텐츠에 대한 코멘트를 해 주시면서 그 외에 덧붙여서 대전MBC가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또는 이런 캠페인을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지요? ,

장래숙 위원

공익방송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공익방송은 어떻게 제안을 하고 어떻게 만들

어지는 건가요?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연중 캠페인 같은 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고요. 이를테면 장 위원님 하시는 일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마음적인 어려움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장래숙 위원

5월이 청소년의 달이었어요. 아까 검색해 봤더니 MBC는 한 번도 청소년의 달 관련 보도를 안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익방송 관련해서 많은 도움 청하겠습니다.

이은표 간사

다른 말씀 없으시면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김환균 사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오늘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시청자 위원님들께서 다수인 상황에서 첫 5월 시청자위원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이지만 여러 가지 알찬 내용과 토론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람된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으로 시청자 위원들의 의견 전달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더 알차고 내용 있는 그런 토론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오늘도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맹렬하게 시청하고 청취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을 보도하는 뉴스라든가 프로그램에서 화합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문제점을 고발할 때는 통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 날의 뉴스 한 쪽지만 보시면 아픈 소리만 해야 되나 하실 수 있지만 대전MBC 채널 전체로 보면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싸우지만 말고 손잡고 갑시다 라는 해법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언론의 통합적인 기능들을 저희는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좀 과한 거 아니야 할 때는 다른 데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했겠지 하고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구요. MBC 사훈은 자유 책임 품위 단합인데 이걸 MBC네트워크 전체의 사훈이고요. 대전MBC의 어떤 비전이라고 할까요 그건 '백년친구 대전MBC'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에게 오래도록 친구 같이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이야기도 나누고 또 유익한 정보를 주자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어디에 힘을 쓸 것인가 할 때는 아까 서주석 실장이 설명하셨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다들 미어질 때 주변을 둘러보면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고맙다고 이야기해 줍시다' 하는 캠페인을 벌였고요. 올해는 여전히 경제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는데 '힘들지만 같이 가십시오 힘을 내세요' 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노잼 도시 관련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대전 사람들부터 노잼 도시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 기자 피디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노잼 도시라고 하는데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대전은 노잼 도시야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노잼 도시를 들여다봤더니 뜻밖의 재미가 있더라. 이걸 드러내 보여주는 게 대전MBC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밖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1층 갤러리M에서 어느 한 분이 소제동 관련해서 그림과 사진을 섞어서 실사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소제동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거든요. '대전분이세요?' 대전분이 아니라 대구분이랍니다. 근데 그분은 소제동을 찍기 위해서 계속 대전에 왔다는 거예요.

왜 그 대구에 계신 분한테는 보였는데 대전 사람들한테는 안 보였을까 그거거든요. 낮은 눈으로 봐야 보입니다. 근데 대전 사람들은 너무 거기에 익숙하니까 그게 좋은지 어쩐지 모르는데 때로는 우리가 낮설게 보면서 스쳐지나갔던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재미있을 수 있다. 콘텐츠를 만들 때도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러면 뜻밖의 보석들을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성 구현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해되고 또 시청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위원회에서 포럼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클 것 같은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되게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각각 다르구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MBC 방송 권역 내의 주 시청자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가지고 그 분들이 재밌어 하는 것, 그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자. 물론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는 방법도 많겠지만 우선 그렇게 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주시고 또 지역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표 간사

네,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휴가철이나 연말에만 일정을 일부 조정하니 해당날짜에 시간을 비워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